

민언련 “이남호 의혹, 타 언론 접촉 철저 조사해야”

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6.3 지선 D-15

**시민단체 “유사 로비 의심
자금 흐름·언론 접촉 수사해야”**
**경찰, 압수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또다른 뇌관 터지나**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캠프의 금품 제공 의혹과 경찰의 압수수색,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 등으로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남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금품 제공 혐의를 구태 정치로 규탄하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돈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는 “이남호 후보는 이제라도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이라며 “금품 살포 회유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마지못해 소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돈으로 언론을 매수하려 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민언련은 “선거 승리를 위해 여론 관리를 시도했다면 다른 언론인을 상대로도 유사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불가피하다”며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니 수사당국은 선거캠프 자금 흐름과 언론 접촉 이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과 비자금 살포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현재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남호 캠프 측과 구체적인 참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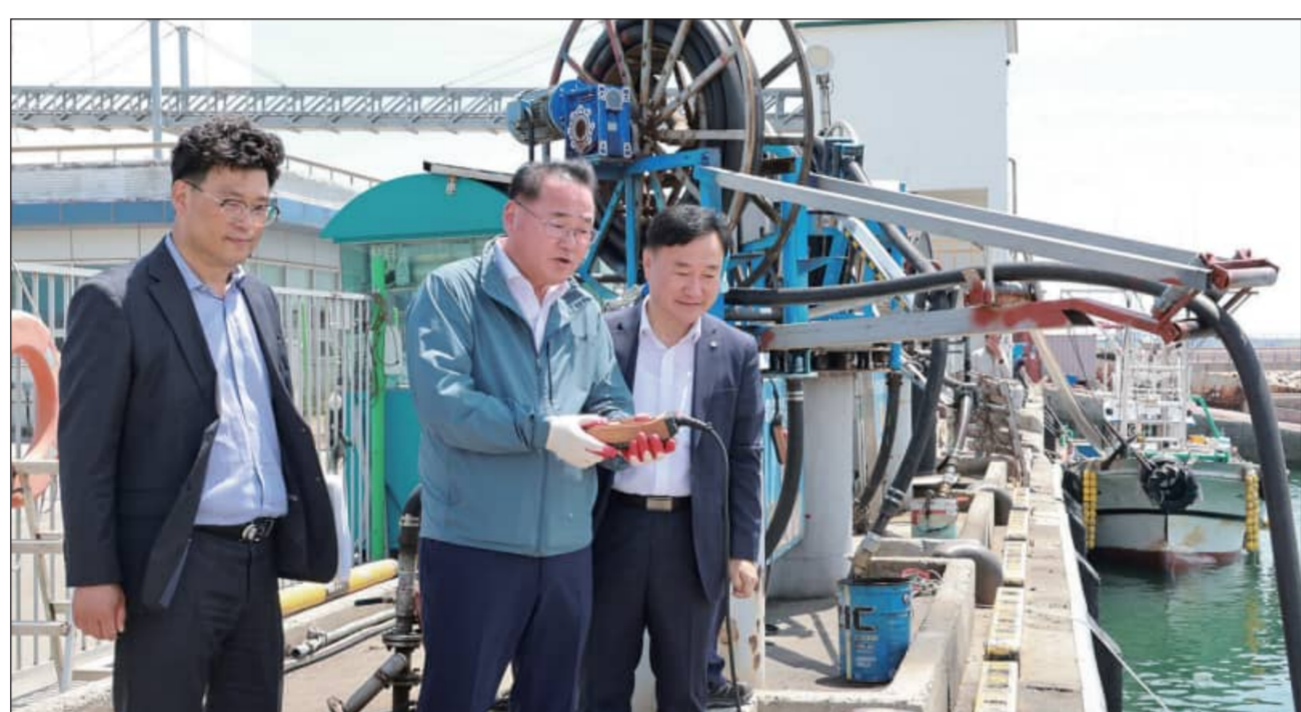
경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 본인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만큼, 대변인 개인의 일탈이라는 캠프 측 해명이 ‘되리 자르기’인지 여부를 가리는 워선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시된만큼 향후 수사 향방에 전국적 관심이 쏠린다.

이남호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내부 확인 결과 언론인 출신 공보담당자와 선 후보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확인돼 해당 관계자를 즉각 선거운동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전 거래 경위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밝혀주겠다고 하면서, 이미 고발된 천호성 후보와 유성동 전 후보 간의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맞붙을 댔다.

/최성민 기자



유가 급등에 어업현장 점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8일 군산 비응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을 찾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 경영 부담과 유류 공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김관영 내란방조 의혹 제기 관련
“당선 막을 목적 허위 주장” 적시**

그간 김관영 전북도지사(무소속)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원택 후보가 경쟁 후보인 김관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가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시 전북도가



이원택 후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청사 통제와 지역계엄사 협조 체계를 유지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방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근 종합특검은 김 후보에 대해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원택 후보는 이와 관련, 11일 전북 대 회견에서 “특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며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관련자 진술과 수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청년 희생양 삼지 말라”

**‘식비 의혹’ 회견 청년들 고발 논란
이원택 후보 측 연관성 의혹 제기**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무소속)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정음 식사대 대남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가 양심선언을 한 청년 2명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면서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대위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리비 문제로 청년들이 징계 처분 등 큰 상처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정음 식사대 관련 모임에 참석했던 청년들까지 고발당하는 상황이 이르렀다”면서 “청년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공개적으로 조작설과 배후설을 제기한 뒤, 청년들은 누군가에 의해 고발됐다”면서 “만약 이 후보가 고발에 관련돼 있다면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 이를 철저히 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청년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임 성격과, 식사비 결제 과정 등 당

시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서 “돌아온 것은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이 아니라 ‘조작’ ‘배후’ ‘정치공작’ 이었고 결국 고발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추진단체 청년들이 회견을 자청한 것은 이 후보 측에서 말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 후보 측은) ‘직접 계산하고 가스름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카운터에 현금을 두고 나왔다’는 등 계속 말이 달라졌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반면 카드전표와 식당 주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주목한다”면서 “이미 전북선관위는 김철지 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와의 공모여부도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우리는 이 후보가 이번 고발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약자의 목소리를 지키고 청년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온 정당인 만큼 청년을 보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호남 지지율 급락...14.3%p 빠졌다

**광주·전라 71.5%→57.2% 하락
리얼미터 “공천 잡음 영향” 분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0% 회복**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14.3%p에 이르는 등 호남에서 급락했다.

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9%p 하락한 45.8%,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33.5%,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3.2%, 진보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8.9%였다.

민주당은 권역별로 광주·전라(14.3%p ↓, 71.5%→57.2%), 서울(5.2%p ↓, 45.0%→39.8%), 대전·세종·충청(5.0%p ↓, 53.2%→48.2%), 부산·울산·경남(2.4%p ↓, 39.8%→37.4%), 인천·경기(1.3%p ↓, 52.9%→51.6%)

에서 크게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6.9%p ↑, 30.4%→37.3%)에서는 올랐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6%p ↑, 35.1%→36.7%), 인천·경기(1.9%p ↑, 26.8%→28.7%), 대전·세종·충청(3.9%p ↑, 31.4%→35.3%), 서울(5.1%p ↑, 32.8%→37.9%), 광주·전라(7.4%p ↑, 13.3%→20.7%)에서 올랐다. 다만 대구·경북(1.2%p ↓, 49.7%→48.5%)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며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이 나타난 데다, 광주·전라 지역의 공천 잡음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11~15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60.5%로 3주만에 60%선을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0.6%p 하락한 35.1%. ‘잘 모름’은 4.4%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구·경북(9.6%p ↑, 44.1%→53.7%), 부산·울산·경남(3.2%p ↑, 52.4%→55.6%), 대전·세종·충청(2.4%p ↓, 61.4%→59.0%), 광주·전라(1.4%p ↓, 83.0%→81.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청와대 복귀 반년인데 전주시는 ‘대통령실’



유범기 전주시장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바뀐지 반년이 지났지만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시청은 아직도 대통령실 명칭을 그대로 남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국정과제 78 지급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부 국정과제 총괄하는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이 전주를 찾았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보도자료 멘트에도 여전히 대통령실 관계자는~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정된 사항은 없다. 또 현장 간담회 개요에도 참석자 대통령실,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명칭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연말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순차 이전하면서 모든 정부조직이나 지자체, 언론에서는 일제히 청와대로 바뀐 명칭을 사용하는데 유독 전주시청만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전주를 찾은 직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 국정과제

비서관실”로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정책 총괄 수행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조직 명칭 등에 있어 보도자료를 낼 때 더 신경을 쓰겠다”며 “당일 청와대 직원들은 일일이 들어 갑자기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제1회 **무주산골 영화제**
 2026. 6. 4. - 6. 8.
 Muju Film Festival 2026

노홍석 권한대행 “민선9기 도정 연속성 확보해야”

도, 18일 간부회의서 현안 점검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고유가 지원·복지 사각지대 점검
풍수해·폭염 대비 선제 대응 당부

전북도는 18일 노홍석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대비 도정 경쟁력 강화 방안과 2027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단계 막바지 대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 등 현안을 점검했다.

노 권한대행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행정 연속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

노 대행은 “단순 실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제로 체감한 변화와 미흡한 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미래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록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5월 말 부처 편성안 제출과 관련, “실 국장은 물론 출연기관장, 지역 국회의 원실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진북 원팀’ 전략으로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대응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챙겼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민원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 기후 재난 대비책도 당부했다. 노 권한대행은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본격 시작될 만큼,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



<사진=전북도>

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움직여달라”면서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계곡,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통제를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읍·면·동 중심의 신속한 대피·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등 법정 선거사무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장정철 기자

6·3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운동 21일 시작

공식 선거운동 13일간 진행
공개연설·명함배부 등 가능

오는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는 이 기간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인쇄물·시설물 이용,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깃발,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시하는 경우에만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보통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보통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첨부하고, 선거공보물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국제유가 상승 대응 어업·수산산업 현장 점검

새만금 식품산업·기업 점검 나서
면세유 급등 어업 경영 부담 확인
수출기업 애로 청취·지원 논의

전북도가 18일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을 점검하고 새만금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군산 비응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과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수출가공단지 입주기업인 ㈜화우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김 부지사는 군산시수협 면세유 공급 시설을 찾아 유류 공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어업용 경유 가격은 올해 3월 1L당 885원에서 5월 기준 1,406원으로 상승하는 등 어업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현장에서 “세유 가격 안정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주문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추경은 경유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휘발유와 중유 사용 어가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과 수출가공단지, 해수 인·배수시설, 배출수 정화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상황을 살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는 총 4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스마트 가공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수산식품산업 기반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수출가공단지에는 김 가공과 냉동·냉장 분야 등 11개 기업의 입주가 추진되고 있으며, 총 1,775억 원 규모의 투자와 451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도는 추가로 4만 평 규모의 확산단지를 조성해 김 산업과 푸드테크를 연계한 미래형 수산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수출가공단지 입주기업인 ㈜화우당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 확대와 인력 수급, 물류 인프라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

갔다. ㈜화우당은 주꾸미볶음과 해물탕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으로, 총 101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미국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새만금을 수산식품 가공·연구·수출 기능이 집적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수산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이원택후보측>

전북 목회자 60여명, 이원택 지지 선언

복지·평화교육 등 정책 제안 전달
이 후보 “통합·상생 전북 만들 것”

전북지역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종철 전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유병근 전 전북장로교회연합회 회장, 정석동 전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형렬 전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추이업 전 전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목회자 60여 명은 지난 17일 이원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후보 당선을 기원하며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정책 제안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비폭력 평화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유학생과 외국인 취

업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유아·아동 등을 위한 도립 야외 가족놀이터 건립 △기독교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등이었다.

박종철 전 대표회장은 “이원택 후보가 겸손한 지도자로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로 정책 제안을 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귀한 제안을 해주신 목회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전북, 통합과 상생의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김관영 캠프 후원금 채도...5일 만에 5억8천만원

계좌 개설 하루 만에 3억 접수
“도민 자존심 세워달라” 시연 이어져
선대위 “상향액 조기 달성 전망”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무소속)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도민 후원금이 채도해 5일 만에 5억8천만 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오후 후원회 계좌를 개설, 단 하루만 3억3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입금되

며 채도했다. 선대위는 이런 추세라면 후원금 상한액인 7억3천만 원을 달성하는데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원금을 둘러싼 사연도 많았다. 지난 13일 길을 가다 김관영 후보 캠프의 현수막을 보고 들어온 60대 부부는 “최근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도민 무시에 자존심이 상해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중앙당이 전북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며 30만원을 입금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주 인근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은 “108 번뇌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해 달라”는 응원과 함께 109만 원을 후원했다.

선대위는 “답지한 후원금 거의 대부분은 1~2만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가족단위나 어린이들의 성금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후보는 지난 11일 전주시 송전동 농수산물시장에서 30여 년간 정과물상을 하고 있는 여성 소상공인 이복임씨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사진=김관영후보측>

기억 해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인도

“전주 자영업 새 지형! 변화추구”

『JRI 이슈브리프 제24호』 발간 100대 생활업종사업자 분석

전주시 비대면디지털 고도성장 및 각 사업동조하락에 따른 결과가 표출되며 생활사업자들의 새로운 변화가 추고되고 있다. 18일 전주시정연구원 박미자 원장은 『JRI 이슈브리프 제24호』를 발간했다. 앞서 연구원은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14대 주목 업종 자료 기반

으로 한 정밀분석을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02개월 동안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원은 ‘동조 하락 전환’ 신호, 전주 자영업 새 지형! 에 따른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연구원은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8.4년 만에 처음으로 “완산구·덕진구 하락 전환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원은 전주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방

향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완산구는 2025년 10월 기준 2만1667개에서 2026년 2월 2만 1481개로 0.86% 감소했다. 덕진구는 2025년 11월 1만8220개 정점 도달 후 1만8118개로 0.56% 감소했다. 특히 연구원은 동조 하락은 기존과 다른 성격의 구조적 신호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생활업종 100개 사업자 중 8대 분류군으로 나눠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변화를 통계적

으로 입증했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로 △위기 업종군 즉각 개입을 통한 자영업 안전망 구축 △신경제 업종군 적극 육성을 통한 자영업 새 지형 선점 △완산·덕진 분화 양상에 따른 구별 차별화 정책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완산구 구도심 골목상권 통합 재구조화와 덕진구 신경제 자영업자 유치에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에코누리어린이집 2년 연속 기부 이어가

아나바다 수익금 전액 기부

에코누리어린이집(원장 안강순)은 18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78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에코누리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한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그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나눔

의 선순환을 실천했다. 특히 에코누리어린이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복지재단의 ‘백만천사 캠페인’에 동참하며 2년 연속 따뜻한 온정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아들은 경제 개념을 익히는 것은 물론, 나눔의 기쁨을 직접 체험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2년째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안강순 원장님과 원아,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소중한 성금을 전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AI디지털배움터’ 운영...시민 AI 역량 함양

기관·단체 및 시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디지털배움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시는 시민들의 AI·디지털 활용 격차를 줄이고, 실생활 중심의 AI·디지털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다다거서당 거점교육 △양 구청 AI·디지털 교육 △찾아가는 AI 교육(시민 대상) △찾아가는 AI·디지털 교육(기관·단체) 등을 병행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거점센터인 ‘다다거서당’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상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5월에만 총 14개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다다거서당 거점교육은 시민들이 AI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생활 활용,

심화·창작 단계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5월 교육은 △AI 처음 배우기 △AI 활용 정보검색법 △AI와 유튜브 활용법 △AI로 사진·영상 편집하기 등이다. 다다거서당 외에도 양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완산구청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덕진구청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AI 교육도 추진한다. 8명 이상의 소그룹이면 오는 10월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AI 돌봄 로봇과 스마트 헬스 체험기, VR 체험기 등 기재를 추가 도입해 체험존 구성을 다양

화할 계획이다. 다다거서당 거점교육 및 양 구청 AI·디지털 교육은 AI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digitallearningcente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찾아가는 AI 교육(시민 대상)은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www.jeonju.go.kr/reserv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원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AI는 이제 전문가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생업, 학습, 행정서비스 이용을 돕는 생활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시민 누구나 AI와 디지털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교육, 체험존, 찾아가는 교육을 촘촘히 운영해 시민들이 AI 시대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중증환자 병원 이송체계 강화

Pre-KTAS 기반 환자 신속 평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기반 병원 이송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Pre-KTAS(병원 전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 활력징후, 통증 정도, 주요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증도를 1단계(Level 1)부터 5단계(Level 5)까지 분류하는 응급환자 평가 시스템이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중증도 결과를 토대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이송 전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응급실의

초기 대응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재이송을 줄이고, 중증환자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와 중증외상, 뇌혈관질환 의심 환자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전문 진료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현장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해 Pre-KTAS 활용 교육과 사례 중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출동 상황을 반영한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 응급환자 분류의 정확성과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77회 정기연주회

독일 낭만주의의 깊은 서정과 감성을 만나는 무대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실에서 제277회 정기연주회 ‘라인강의 낭만’을 개최한다. 공연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멘델스존과 슈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꾸미며 섬세한 서정성과 풍부한 감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립교향악단 정주영 지휘자가 지휘를 맡아 깊이 있는 해석과 안정감 있는 연주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은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으로 문을 연다. 셰익스피어 희곡을 바탕으로 작곡된 이 작품을 요정들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경쾌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곡으로, 낭만주의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풍부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 이어 국내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숙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25’

를 선보인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와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긴밀한 호흡이 돋보인다. 또한 슈만의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97 ‘라인’이 연주된다. 독일 라인강 지역의 풍경과 분위기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작품으로,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정서가 담긴 슈만 후기 교향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공연 입장권은 S석 1만원, A석 7000원으로 나눠결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 18일~8월 31일 약 3개월간 24시간 전문 상담사 대기

전북경찰청은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향이 있는 만 19세미만 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다. 신고 및 상담 채널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였



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에 무게를 두었고, 처분을 결정할 때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적극적인 선처를 행할 방침이다. 또 처분 이후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 상담사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2026 새만금 인공지능 영상 공모전’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새만금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새만금청과 현대자동차 그룹 간 투자협약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튜브 숏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엔지(MZ)세대를 비롯해 누구나 새만금의 미래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제는 ‘인공지능(AI) 상상한 로봇, 수소 등 첨단산업의 새만금 미래 도시’로, 새만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형식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영상 제작해 고화질(Full HD) 엠피포(MP4)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26년 5월 18일



부터 6월 7일까지, 출품작은 60초 분량의 세로형 숏폼 영상을 기본으로 최대 3분 이내의 롱폼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수상한 이력이 없는 본인 순수 창작물로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총상금은 300만원으로 창의성, 주제 적합성, 대중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5명(각 10만원) 등 총 8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청 전통사찰 화재안전조사 실시

연등·촛불 사용 증가 사찰 화재위험요인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8일 김제 금산사를 대상으로 소방청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연등 설치와 촛불·향 사용, 전기 시설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전통사찰 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찰을 찾는 도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불축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 금산사는 국보 미륵전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전북 대표 전통사찰로, 목조 건축물과 산림이 인접

해 작은 불씨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조사에서는 금산사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연등 설치 구간 전기배선 관리 실태 △촛불·향 등 화기취급 장소 안전관리 여부 △목조문화유산 주변 자연물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님 오신 날 전후 전통사찰과 주요 행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소망유치원 제24회 전북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출전

전주덕진소방서는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주덕진소방서 대표로 출전하는 소망유치원 7세 어린이 34명이 안전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대회 참가곡인 ‘Red Light’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소방관의 사명감과 꿈,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의 열정을 담아낸 곡이다. 특히 이번 곡은 최근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K-pop 분위기를 반영해 제작된 어린이 119소방동요로, 경쾌한 리듬과 따라 부르기 쉬운 구성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소민 기자



소망유치원은 대회를 앞두고 합창 연습과 율동을 반복하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노래를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본선 무대는 내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정소민 기자

“전북 수산식품, 수도권 소비자 사로잡다”

‘일산 메가쇼’ 참가... 맛과 신선함 전달 현장중심 마케팅 강화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일산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전북 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 ‘2026 일산 메가쇼 시즌1’에는 도내 해양수산 분야 기업 10개사가 함께 참여해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전

북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선보였다. 바이오진흥원은 공동관 운영과 함께 시식·체험 프로그램, 현장 프로모션 등을 적극 지원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했다. 공동관은 “맛 만든 신선함!”,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수산식품만의 신선함과 지역 고유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식·체험형 운영과 현장 참여 이벤트를 확대해 관람객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북 식품의 우수성과 브랜

드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행사기간 동안 약 8600만원의 현장 매출과 1300만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약 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가기업 ‘식도락푸드’ 관계자는 “수도권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제품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메가쇼는 전북 농수산식품의 상품성과 시장 경쟁력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

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마케팅과 유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채종석 수산정책과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농수산 식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박람회 지원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및 유통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식품안전담당자 실무 교육

사례 중심 현장 대응력 높여 전문가를 초빙해 ‘원산지 표시 관리 및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이어 진행된 세스코 위탁교육에서는 상품별 중점관리 사항과 위반사례를 분석해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정부지원사업’ 교육도 함께 열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지원품목과 전산프로세스를 공유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본격 시작

AI·위성드론 총동원... 전 분야 실태 파악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적 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자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 실경작 여부를 일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과 AI 탐지 정보 등을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우선, 항공·위성 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에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온실·축사 등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간 휴경지(목은 농지) 판독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대상 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소기업인, 도지사 주요후보자 초청 간담회

차기 도정반영 정책과제 제안 10건의 주요 정책과제를 두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주요 건의사항에는 △원자재 수급난 및 유통성 위기 극복 방안 요청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도 관련 공공기관 매칭데이 정례화 △대기오염물질 불검출 항목 측정 제외 및 측정 횟수 합리화 △군산항 7부두 75선석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개발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항추진제도 적극 활용 △생계형 소상공인 LPG용기 검사비용 지원 △전북 특장차 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전북중·중견기업 특화 RE100산업단지 지정·지원 △전북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예산 확대 △전주 중소기업물류센터 확장 및 제2센터 건립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TP-캠틱종합기술원, 레드푸드 기업 역량 강화

장수군 특화 자원 경쟁력 확보 및 기업가 정신 함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와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흡)은 18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 시군구연고 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장수군의 특화 자원인 ‘레드푸드’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고객 가치 제안을 통한 사업 아이템 선정 △수익 구조 최적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AI를 활용한 실전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 등에 구성돼 참여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는 별도의 상담부스를 운영해 사업담당자들이 기업별 맞춤형 1:1 피드백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겪은 경영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상담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자 지원기업 모집 공고’와 관련해 구

체적인 신청 방법 및 지원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문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교육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수군 기업들에게 실무 중심의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향후 장수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소민 기자

용한 실전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 등에 관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고객 가치 제안을 통한 사업 아이템 선정 △수익 구조 최적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AI를 활용

우분 퇴비로 새만금간척지 ‘땅심’ 살린다

농진청 ‘토양 비옥도 및 작물 생산성 향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새만금 신규 간척지에 완전히 부숙된 완숙 우분 퇴비를 7년간 지속해서 투입한 결과, 토양 비옥도와 작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새만금간척지의 초기 유기물 함량은 일반적인 밭 토양 적정 범위(20~30g/kg)의 1/10 수준에 불과해 작물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연구진은 간척지 내 시범 재배지에 완숙 우분 퇴비와 무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토양 상태와 작물 생육 변화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초기 2.3g/kg에 불과했던 유기물 함량이 7년 뒤 478% 증가한 13.3g/kg을 기록하며, 일반 농경지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토양 속 유효인산도 25.8mg/kg에서 432mg/kg으로 증가해 일반 밭 토양 적정범위(300~500mg/kg)를 충족했다.

토양의 물리적 구조도 개선돼 흙의 단단한 정도(용적밀도)는 개간 전보다 13.3% 낮아졌고, 흙 속 빈 공간 비율(공극률)은 14% 증가했다. 반면, 무기질 비료만 투입했을 때는 물리적 구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면서 땅심이 높아져 무기질 비료만 사용했을 때보다 콩 수량이 304kg/10a로 15.6% 늘었다. 옥수수 수량 역시 549kg/10a로 20%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퇴비 속 유기물이 흙 알갱이를 포도송이 같은 떠알구조로

만들어 물 빠짐과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개선한 결과다. 토양의 물 보유력과 양분 보유력을 동시에 높여 유익한 미생물이 비료를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토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완숙 퇴비는 ‘가축분뇨 및 비료관리법’상 부숙도 판정 기준에서 ‘부숙 완료’ 등급을 받아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돼 악취가 없으며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김영태 기자

전기공사협 전북도회 ‘전북전기인 등반대회’ 개최

올해 20주년... 전기계 대표적 전기인 행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최병인 회장)는 지난 16일 완주군 구이중학교에서 전기인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기인의 한마당 잔치인 제15회 전북전기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배우현 전북도 과장, 윤여일 한전 전북본부장, 최동환 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장, 최병희 전기기술인협회 전북회장, 서광수 조명전기설비학회 전북지부장,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인성철 부회장,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이사장, 김종열 (재)전북전기공사협회장 이사장, 이재욱 삼광농협 조

합장, 기술자문위원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 전북도·전주시·LH·전북개발공사·전북대·우석대 등 유관기관 전기인과 회원 가족이 참가해 모악산 산행과 구이저수지 트레킹, 그리고 명랑운동회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제공한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숙박권 등 200여개의 경품추첨은 물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전기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최병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는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전기인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전기인 최고의 행사가 되기 위



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제15회 대회를 개최한 도내 전기계 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2006년도에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으로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미국사회보장청, 미국연금 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우리 국민들의 미국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18일부터 나흘 동안 공단 본부 및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미국 사회보장청과 함께 국내 거주 미국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미국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2001년 4월 이후, 미국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중 매년 600명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국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42개 국가의 외국연금 수급자 중 미국연금 수급자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사회보장청 방문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제안으로 2025년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건설현장 안전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질적인 작동성 강화와 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재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토목, 건축, 기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소방 등 전 공종의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강화된 안전 관련 법규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공종별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기별 현장 점검 포인트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했다. 김동진 전북지역본부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서류상의 안전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공사 감독과 현장대리인이 원팀이 돼 철저한 주의 환기와 선제적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학부모, 학폭 예방 교육 걸돌아”

교원과 학생 참여율은 100% 육박...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으로 대체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교원과 학생 중심으로만 진행되면서, 학폭 근절의 핵심인 '학부모 예방 교육'은 걸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2026년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실적은 교원 및 학생과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

전주와 군산 등 도내 주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원 참여 비율은 대부분 100%를 기록했으며, 학생 평균 교육 시간 역시 정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법정 시수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횟수는 학기당 1회에 그쳤으며, 실제 참여 인원과 참여 비율은 대부분 데이터가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별도의 집합 교육이나 실질적인 온라인 연수가 아닌, 가정통신문 배부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사이버 폭력 등으로 진화하면서 가

정 내 초기 징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정작 1차 방어선인 학부모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대상 학폭 예방교육은 법률상 의무 교육으로 각 학교 별로 상·하반기 나눠 실시하고 가정통신문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가정통신문 배부 관행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학부모의 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시스템과 참여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 대상 의무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등 수많은 항목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대부분의 교육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교육과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학부모가 적어 결국 가정통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며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의무교육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형식적인 배부를 넘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근대미술관, 태건석 초대전 개최

8월까지 작품 28여 점 선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근대미술관에서 태건석 초대전 '비정형의 변주를 넘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태건석 작가의 잡재의식의 심연을 담아낸 추상 회화를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면을 지속적으로 사유하며, 물질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상을 바탕으로 관람객과 소통해 왔다.

군산 출생인 태건석 작가는 1960년대부터 군산 지역 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는 작가의 삶 전반에 걸친 잠재의식의 탐구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지향적인 내면의 흐름을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긍정성과 생산성,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되새기며 관람객들이 행복한 삶의 의미를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건석 작가는 1963년 제1회 군산개항전, 비구상전을 개최했으며, 1970년대 이후 구경철서예 건물 지하에 위치한 김다방에서 열린 전시회 등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의



<사진=군산시>

식과 무의식, 우연과 필연 그리고 형상과 비형상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작품 세계를 통해 깊은 침묵과 사유의 공간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라며 “관람객분들이 작품을 통해 고요의 공간인 정신적 회화의 영역에서 사유의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에서는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 기관 연계 기획전과 자체 기획전 등으로 연 4회 정도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우수한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23일 '시청 파크 콘서트' 열린다

야외공연장서 개최... 시민 누구나 무료 입장

익산시청의 새로운 광장이 시민들의 웃음소리와 감동적인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신청사 야외공연장에서 시민들과 처음으로 호흡하는 '시청 파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신청사 개청과 함께 조성된 야외공연장을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아지트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대규모 야외 축제다.

공연의 포문은 오후 6시 익산시립예술단이 연다. 시립무용단은 화려한 부채

춤 서정적인 율하정인 등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극치를 선보이며, 시립풍물단은 흥겨운 장구놀이와 판굿으로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린다. 이어 시립합창단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대중가요와 합창곡을 선사하며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오후 7시부터는 익산예술의전당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산책음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올해는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적인 멜로디로 사랑받는 원수타인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의 소코도모가 출연해 트렌디한 힙합 사운드로 익산의 밤바람을 물들인다.

탁 트인 야외 광장에서 즐기는 힙합 공연은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색다른 설렘을 선사할 전

이다. 이번 콘서트는 별도의 예매 절차나 입장료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야외공연장 내에 별도의 피크닉 공간이 마련돼 있어, 간단한 간식과 돛자리를 준비해 오면 도심 속에서 소풍을 즐기듯 여유롭게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익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신청사 야외공연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처음 돌아가는 자리인 만큼, 격식을 차린 공연보다는 온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축제에 집중했다”며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시청 광장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정읍 내장산 전국 자전거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정읍시가 지난 16일 내장산 일원에서 전국적 자전거 동호인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정읍 내장산 그랑프론도와 메디오폰도'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자전거연맹이 주관했다.

경기 종목은 118.4km를 달리는 장거리 코스와 82.2km를 달리는 중거리 코스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선수들은 내장산위태파크를 출발해 내장산과 옥정호를 지나는 구간을 달렸다.

이후 정읍 시내와 순창군 일원을 거친 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로를 완주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신록의 정취를 즐겼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완주의 기쁨도 나눴다.

정읍경찰서와 순창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시민들의 배려 덕분에 행사는 질서 있게 치러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자전거의 도



<사진=정읍시>

전과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참가자들이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추억을 만드는

/정읍=김정민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아이더와 전북 매력 알렸다

빠니보틀·권은비 참여 콘텐츠 공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재단과 협업체 제작한 유튜브 웹예능 콘텐츠 '아이더 살레 시즌3' 전북 편을 지난 15일 아이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이더 살레'는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 가는 산장 '살레(Chalet)'를 콘셉트로, 출연진과 일반 참가자가 함께 여행하며 지역의 자연과 아웃도어 활동,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다. 시즌3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가수 권은비가 호스트로 참여했다.

이번 전북편은 전주, 진안, 임실의 관광자원과 체험 콘텐츠를 하나의 여행 흐름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관광지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연진과 참가자가 지역을 여행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담아 서부

내륙권 관광자원을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촬영지는 △전주 한옥마을 △하양양옥집 △진안 마이산 △임실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등이다. 영상에서 빠니보틀과 권은비는 일반인 참가자들과 함께 마이산 트레킹, 전주 모주체험, 자연휴양림 숙박 등을 경험하며 전북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아이더 살레 전북편은 서부내륙권의 관광자원을 여행 예능 콘텐츠 안에 담아낸 협업 사례다”라며 “전주, 진안, 임실의 자연과 체험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실제 전북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대중성이 높은 온라인 콘텐츠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서부내륙권 사업의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건강한 생활 습관 5가지

1. 외출 후 돌아와서 10초 이상 손 씻기

2. 3가지 이상 음식을 골고루 먹기

3. 청결 유지 하기

4. 주 2회 이상 1회에 20분이상 규칙적인운동

5. 저녁 9시~10시 사이에 규칙적인 숙면



군산시, 3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군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전체 과세대상 차량 14만 9천 9백 대 중 1·3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11만 2천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소유권 변동 △말소 △사실상 멸실,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변동 및 말소 자료, 사망자 명의 차량의 주된 납세의무자 지정, 관내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한 현황, 고질체납 차량의 사실상 멸실 여부, 비과세·감면 차량의 등록 적정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 연식에 따른 환가치,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통해 사실상 멸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산시 세무과장(서정석)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와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5·18 진상 규명 외친 최덕수 열사 추모제 열어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는 지난 16일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시민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덕수 열사 38주기 및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88년 단국대학교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철폐를 촉구하며 분신한 최덕수 열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열사가 남긴 민주주의와 민중항거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김옥자 추모사업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열사의 모교인 베영고등학교 교장과 학생회, 단국대학교 민주동맹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지며 열사의 뜻을 되새겼다.

김옥자 추모사업회장은 “이번 문화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최덕수 열사의 정신이 시민들 곁에 다시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와 정의의 달인 5월에 열사 추모 38주기 문화제가 열려 뜻깊다”며 “올해 1월 아들의 연원을 알리기 위해 애쓰시다 세상을 떠난 고(故) 고순임 여사와 5·18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9월까지 폭염 속 만성질환 노인 ‘밀착 돌봄’

익산시가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 노인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보건 안전망 가동에 나섰다.

익산시 보건소는 오는 9월까지 고혈압과 당뇨 등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와 홀몸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낮 시간대 폭염특보는 물론,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주의보 발령 시에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소 전문 인력들이 가정 방문과 안부 전화,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을 총동원해 혈당·혈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열대야가 발생하면 일반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고령자는 수면장애를 겪거나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병행해 폭염으로 인한 2차 질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문화·체험 명소 ‘부상’ 2(題)

10개 면에 ‘문화복지 아지트’ 조성

익산시 농촌 지역의 풍경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요가를 배우고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문화·복지 거점’으로 완전히 재탄생한다.

익산시는 2019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오는 2027년까지 10개 면 전체에 현대적인 정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용포면의 풍물교실부터 △왕궁면 요가 프로그램 △합리면 저속노화 천연화장품 만들기 △용동면 탁구 동아리 △춘포면 난타교실 등은 문화 시설이 부족했던 농촌 어르신과 주민들 사이에서 “동네에 생기가 돈다”는 극찬을 받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의 열기는 확장되고 있다.

다. 성당면과 삼기면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한창이다.

이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여산·남산·망성 등 3개 면은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2027년 6월까지 개소당 약 4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간들은 공유주방, 빨래방, 마을 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고루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2027년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시 10개 면 전체에는 빈틈없는 복지·문화 안전망이 갖춰지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 만든 이 거점 공간들이 농촌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를 누리고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활기찬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람객 ‘급증’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 연계 전략으로 관람객이 급증하며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익산시는 석재 산업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오는 11월까지 통합 예약시스템상 모든 예약이 매진되는 등 전례 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단순히 보는 전시에 그치지 않고, 석재를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다.

둘째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창의 체험부터 △백택이 홀로그램 쇼룸 △모래놀이 △진통놀이 체험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

텐츠들이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교육 기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석제품전시홍보관의 활기는 담당 너머 황등면 일대가 지 피지고 있다. 홍보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인근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는 평가다. 시는 늘어나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관 야외 부지에 ‘생활밀착형 숲(의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익산석을 활용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임대용 노후농기계 정비 및 폐기

일부 장비 농가 지원…

안전 확보 및 효율성 도모

군산시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를 정비·폐기하고, 일부 장비는 농가에 활용 지원하는 등 정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번기 임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총 73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단계적인 교체 추진한다.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브레이크 성능 저하, 전복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은 장비는 과감히 폐기해 농업인의 작업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비 대상 장비 중에는 내구연한은 경과했으나 정상 작동이 가능하고 상태가 양호한 농기계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장비를 단순히 폐기하기보다 필요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상 농기계는 관리기 등 14종 30대이며, 군산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의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7월 중 5주

간, 입찰은 2026년 7월 중순 경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농업인 입장에서 해당 장비가 일부 노후화된 부분은 있으나, 기본적인 성능이 유지되고 가격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농가나 보조장비로 활용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주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노후 장비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정비·폐기하고, 활용 가능한 장비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집중호우 대비 상수도 ‘철통 점검’

신흥정수장 등 8개소

선제적 대비 실시

익산시가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민들의 생명수인 상수도 공급 시설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사회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도물 생산·공급 시설의 기능 마

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익산시 수도물 공급의 핵심지 1종 시설물인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신흥공업용수처리시설 3개소를 비롯해, 2종 시설물인 신흥보조수원지 △팔봉배수지 △금마가압장 등 총 8개소다.

점검반은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나 침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축대, 옹벽, 절개지 등 구조물의 파손·균열·붕괴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정수장 가동의 핵심인 기계·전기·계측 설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가동 시 소음과 진동 상태, 변압기 온도 변화, 전기 절연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낙뢰나 침수로 인한 정전·단수 사고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정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해 수도물 공급에 단 한 건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수시설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어떠한 기습 폭우와 자연재해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깨끗한 수도물을 생산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환기시설 등 80% 지급

정읍시가 식중독과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반 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주방 환기 시설 전문 청소 비용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주방에 기름때가 쌓이기 쉬운 덮개나 배관 같은 환기 시설과 화구의 전문 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체 청소비용의 80%(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업주가 스스로 부담하면 된다.

주방 시설이 심하게 오염되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식품 위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

가 조리 과정에서 튀는 불꽃이 찌든 기름때에 옮겨붙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지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손희경 시 보건소장은 “주방 청소는 업주 혼자 힘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조리 환경을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2,031필지 전수조사

익산시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취득한 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중심의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토지 등 연관 재산 2,03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란 주로 산업단지 분양 수입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한 토지와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시가 보유한 소중할 공공 자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점유 실태 점검 △누락 공유재산 발굴 등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 점유나 장부 불일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활용 가능한 땅은 시민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마감 임박

정읍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은 오는 29일 방문 접수, 31일 비대면 접수로 각각 마감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뒤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접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휴대전

화와 자동 응답 시스템, 인터넷 농업e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 비대면 접수는 이를 뒤인 31일 끝난다.

시는 접수가 모두 끝나면 6월 중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실경자 현장점검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단 한 분의 농업인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시, 공약사업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는 지난 15일,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군산전북대학교병원과 월명공원 전망대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평가단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이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명공원 전망대 건립현장에서는 군산의 자연경관과 도심에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해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방문객 체류 및 이동 동선을 확대

함으로써 지역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과 안전 중심의 시공을 당부했다.

군산선교역사관에서는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과 선교 역사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수재택주·청주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을 방문해 군산시 지역 수재택주 산업 육성 및 관광 연계 활성화와 사업의 추진 현황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양조 기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공백 없는 현안 추진 ‘집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 등 점검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수성동과 연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칠보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과 미래 기반 조성 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된 민

생 사업은 물론, 지역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들이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살피는 데 집중했다.

먼저 유 권한대행은 수성동과 연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서 칠보면 시산리 일대에 짓고 있는 농촌유학 가족체험형 거주시설 현장에서 이동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이 단독주택 10호와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 가족이 농촌에 머무르고, 지역 학교와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읍상반기 운영을 앞둔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총사업비 60억여원이 투입된 이곳은 숙박과 체험 기능을 모두 갖춘 수련 시설이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의 삶과 연결된 사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민생사업은 더욱 촘촘히 챙기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미래 기반 사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AI '야간 당직봇' 운영

연중 운영... 통화내용 텍스트로 자동 기록 민원 누락 감소 기대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야간 당직봇'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 당직봇은 20일부터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365일 연중 운영되며, 군민들이 야간에도 군청 당직전화로 통해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야간 당직봇은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는 기술을 활용해 문의 내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보이스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도입해 음성안내 이외에도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단순 정보 안내의 경우 신속한 문자 안내가 가능해 군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화 내용을 글자로 자동 기록하는 기능이 적용돼 접수된 민원이 빠



고창군, 20일부터 인공지능 활용 '야간 당직봇' 운영 <사진=고창군>

지없이 관리된다. 이를 통해 민원 누락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민원 처리와 행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반복적인 단순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해 당직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민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안내가 익숙하

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순필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이라는 의미와 함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가족 프로그램 '풍성'

가정의 달 맞아 연계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책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고 독서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평일 위주로 진행되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감동화나라 △책 읽어주는 도서관 △도서관 견학 등이다.

'실감동화나라'는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돼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책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전문 강사와 함께 그림책

을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감동화나라 △친구와 함께 책 읽는 토요일 △그림책 원화 전시 등이다.

특히 1층 꿈빛라운지에서는 그림책 '내일은 맑겠습니다' 원화 전시가 운영되고 2층 '김제에서' 코너에서는 김제 출신 아동작가인 주미라, 김자연, 이희숙 작가의 도서를 전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전시 코너에서는 청년 독서동아리가 추천한 '5월, 고마운 사람이 생기는 책'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박원용 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책과 친해지는 공간으로, 가족들께는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선운사 숲캉스' 성황리 마무리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5일 선운사 일원에서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에게 하는 '선운사 숲캉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창군 관내 및 인근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와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일상적인 보육 환경을 벗어나 사찰과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도 체험 △숲속 친구 찾기 및 자연의 소리 듣기 △마음의 평온을 경험하는 심잉불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선운사 흥보국장 효근스님이 직접 진행한 대웅전 해설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 문화재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숲속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힐링 공간은 가족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선생님께 전하는 보물 편지 찾기' 이벤트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아이들이 숲속에 숨겨진 편지를 찾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류선화 센터장은 "숲속에서의 자유로운 탐색 활동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농기계 안전 사용 캠페인 전개

고창군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기계 운송 차량에 '절감은 실천'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 점검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소모품 관리 홍보를 통해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와 현장 지도를 강화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안심귀기팔찌' 보급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심귀기팔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귀기팔찌는 치매환자가 상시 착용할 수 있는 팔찌형 인식표로, 보호자 연락처와 대상자 정보를 각인하여 실종 발생 시 발견자가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실종 위험이 있거나 배회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반드시 보호자의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작·배부된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치매환자 실종은 발견 시간이 늦어질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안심귀기팔찌 보급을 통해 가족들의 불안 감소와 신속한 발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동진면 여성단체協, 장학금 기탁

(재)부안군농인재육성재단은 동진면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덕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동진면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부안마실축제 기간 동안 회원들이 직접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정덕례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훗날 부안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마음껏 배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진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갯벌, 참여형 생태관광 확대

고창군이 청년과 어린이,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고창갯벌 생태관광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5~17일간 '고창갯벌 청년캠프'가 성황리에 열렸다.

동시에 24일까지 '고창갯벌 사운드 워킹'이 진행중이다. 참가자들은 사운드 키트를 활용해 갯벌의 소리를 직접 채집하고 기록하고, 바람과 물결, 다양한 생명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따라 걸으며 고창갯벌의 생태를 새로운 감각으로 경험하게 된다.

22일 첫 운영을 시작하는 유아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 '고창갯벌 아

기 새 교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30일에는 가족 프로그램 '이달의 새 탐조 교실'이 열린다. 이외에도 5월 참가 모집을 시작하는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저스'는 초등학생들이 고창갯벌 모니터링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하반기에는 △고창갯벌 버드워치스테이(7월) △고창갯벌 맨발걷기대회(10월)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11월)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탐조와 생태체험, 맨발걷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고창갯벌만의 생태관광 브랜드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부령새마을금고 드림스타트 아동에 우산 기탁

부안군 부령새마을금고는 관내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부안군 드림스타트에 어린이 안전 우산 2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안전 우산은 투명 소재와 반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우천시 운전자가 확보와 어린이 보호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령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산, 난방용품, 책가방 등 다양한 물품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부령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우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역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부령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며 후원받은 안전우산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소중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수산분야 국비 확보 '총력'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사업비 반영 건의

김제시는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18일 해양수산부에 방문해 핵심 수산사업인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핵심은 전국 최초의 연계형 수산창업 생태계 구축에 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전국 최초의 내수양식 창업모델인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디딤돌 양식장이 더해지면, 비즈니스센터에서 이론·기술 교육을 받은 예비 창업자가 곧바로 실전 양식 경험을 쌓고 독립 창업으로 이어지는 전국 유일의 원스톱 수산창업 모델이 완성된다.

시는 전국 내수양식산업의 주요 거점에도 종사자 고령화와 수급 불균



형으로 인한 소득 하락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는 디딤돌 양식장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창업 인구를 내수양식업으로 유입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 박승준 차관에게 "해양수산부 박승준 차관에게 해양수산부 중점 추진과제와 사업의 부합성을 설명하고, 특히 전통 수

산업 혁신을 위한 양식업 스마트화·규모화 및 양식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서 권한대행은 "교육에서 실전까지 이어지는 전국 최초의 내수면 창업 생태계를 완성해 수산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김제를 대한민국 내수양식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운영 상황 점검

정화영 권한대행, 장비 확인 및 의견 청취

부안군은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18일 부안읍 모산경로당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스마트 경로당 사업 운영 상황을 점

검했다고 밝혔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부안읍 모산경로당을 방문해 화상 시스템과 건강측정장비를 확인하고 스마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 방문해 스튜디오 화면에서 송출되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스마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강-여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속 지원

개인 심리 상태 및 특성 맞춤형 상담 제공

김제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회복과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

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민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심리 상태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안내 및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 심리적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적

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어려운 만큼 조기 상담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제 시민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마음건강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국영석 “완주 대전환” 5대 공약 발표

탄소연금·500억 농민기금 제시 공공의료·행정 인프라 확충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5대 핵심 공약을 발표, 완주 대전환을 통해 단단한 완주, 희망 완주를 현실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자주독립체로서 완주, 독선과 불통이 아닌 군민이 주인 되는 완주, 미래 비전을 통한 희망 완주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5대 핵심 공약으로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500억 농민 든든기금 조성 및 현장 농정으로 스마트 농업 허



국영석 후보

브 완성 △공공·의료·사범·행정·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행정 주권 및 안전 자립 도시 완성 △K-로컬 디지털 중심지 및 완주형 창업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 후보는 완주군의 산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해 공공주도 탄소 자산화로 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500억 농민 든든기금 조성 및 현장 농정으로 스마트 농업 허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등 농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500억 원 규모 농민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맛벌이 부부 육아 공백 제로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 체계 완비,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 거점 명문고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국 후보는 응급실, 소아과, 분만실을 갖춘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의료 독립을 실현하고 단순 판매에 머무는 완주로컬푸드를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제2의 도약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기업 살려 지역경제 키운다 2(題)

순창군, 기업 친화 행정 강화 나서

순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기업 친화 행정 강화에 나섰다.

군은 기업 애로 해소부터 경영 안정, 일자리 지원, 규제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우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해소 전담제'를 운영하며,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빠르게 지원하는 민원 신속 처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기업인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순창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을자 이차보전 사업을 비롯해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 근로자 출퇴근 승합차량 유류비 지원 등을 추진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순창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소통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내 기업 제품 홍보 및 규제 관련 조례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친기업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순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식품기업, 메가쇼 공동판매관 '성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생활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26 시즌1'에 참가해 순창 식품기업 공동판매관을 운영한 결과 총 6,000만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순창 농생명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진흥원은 순창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동 브랜드 '모두의 순창' 판매관을 운영했다.

공동판매관에는 지역 식품기업 6개사가 참여해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된장 등 전통 장류와 발효식품을 비롯해 전통주, 유기농차(작두콩차·돼지감자차 등), 가마술 누룽지 등 총 25개 품목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현장 시식 행사와 구

매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순창 식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진흥원은 지난해에도 공동 브랜드 '모두의 순창'을 활용해 수도권 및 지역 박람회 9회에 참가, 약 2억 5,000만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는 등 순창 식품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해왔다.

올해 역시 이번 메가쇼 참가를 시작으로 주요 박람회와 지역 행사 등에 6회 이상 참가해 지역 식품기업의 유통망 확대와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도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전북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돌본다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권 산림·문화자원 활용

남원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 위해 나섰다.

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소재 스위트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 나를 켜기 위한 OF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제남현장 최일선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첫 도입 이후 전북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올해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은 이번 1회차(32명 참여)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10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을 거점으로 남원만의 풍부한 산림·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재충전 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및 자기관리 특강 △백두대간 힐링 숲 체험 △광한루원 및 남원시립김병중 미술관 관람 △남원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남원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의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소방청 자매도시로 지정되며,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힘과 재충전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취업 경쟁력 높여” SI 활용 사무실무교육 수료식

순창군은 지난 15일 군민종합복지회관에서 직업교육훈련 'SI 활용 사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4월 3일 개강해 총 13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2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컴퓨터활용능력2와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기초교육부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SI 활용 사무실무 교육까지 폭넓게 이수했다.

또한 교육생들은 ITQ(한글·엑셀) 자격증 취득 시험에도 응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취업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생들은 문서작성과 데이터 관리, SI를 활용한 업무처리 방법 등을 익히며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한글과 엑셀은 실제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영양플러스대상 가구 영유아 하임리히법 교육 '호응'

완주군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법 하임리히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완주소방서가 참여해 영유아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시행 방법, 119신고 및 응급처치 요령,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인형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보호자들이 직접 하임리히법을 실습하며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응급상황이 가장 걱정됐는데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 매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관리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서, 청소년 도박 '제로화' 특별 예방 캠페인 진행

완주경찰서(서장 박종호)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 불법 도박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특별 예방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용진중학교를 찾아 전교생 대상 '등굣길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며 특별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활동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도박의 중독성을 직관적으로 경고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단순한 훈계를 넘어, 도박 유혹에 직면했을 때의 실질적인 거절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연결 프로세스를 홍보했다.

박종호 완주경찰서장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갈취 등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단순 단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상담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청소년 생활실태 전수조사 돌입

중·고생 대상 위기요인 파악 예술·체육·특성화학교 확대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오는 22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잠재적 위기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실질적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기존 참여 학교인 봉서중, 완주중, 용진중, 고산고, 완주고 5개교에 더해, 올해는 전북체육중, 전주예술중, 운주중, 수소에너지고, 전주예술고, 전주체육고, 세인고 등 7개 학교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로써 일반 학교는 물론

예술·체육·특성화 계열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보다 다각적인 청소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센터 소속 전문상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 목적과 취지를 안내한 뒤 진행되며, 모든 응답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욕구를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완주군 청소년 생활 실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완주군청과 교육지원청, 지역 내 유관기관과 공유되어 위기 청소년 예방 전략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의무 이행 점검

지원 대상자 199명 대상 진행 부정수급·환수 사례 사전 예방

남원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점검이 나선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 122명과 의무영농 수행자 77명 등 총 1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무교육 이수, 독립경영 유지, 전업적 영농 종사 여부, 영농일지 작성 여부 등이며, 관련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일부 의무사항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별 안내와 이행 독려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 수령 기간에 상응하는 의무영농 기간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 고산농협 이동장터, 생활복지 역할 '특독'

장터·칼같이 서비스 병행 호응

완주 고산농협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가 단순한 식료품 판매를 넘어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고산농협은 최근 이동장터 운영 현장에서 주민 대상 칼같이 서비스를 함께 진행했다. 이동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장보기를 하면서 칼을 손질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고산농협 이동장터는 교통 여건이 불편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식료품과 생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고산농협은 2025년 9월부터 농촌지역 식품사막 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산·비봉·동산 등 북완주



<사진=완주군>

지역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있다.

고산농협은 이동장터가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형 사업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반응을 살펴 칼같이 서비스를 정례화하거나, 이동장터 차량에 업소용 칼같이 장비를 부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1인당 20만원 문화예술비 제공 393명 혜택...사용처·금액 늘어

남원시는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지역 사회초년생 393명에게 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도 3년 차를 맞이한 본 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용처와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사업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남원시 배정 인원인 393명 모두 신청을 조기에 완료했다.

현재 패스 사용이 가능한 예매처는 △공연·전시 분야 4개소(NOL티켓, YES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와 △영화 분야 3개소(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이다. 해당 온라인 예매처에서 관람료 결제 시 포인트를 조회해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와 복합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메일 기준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내역이 전혀 없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아울러 지원금이 환수된 대상자는 올해 추진되는 2차 모집 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남원시는 1차 발급자 중 기간 내 미사용으로 인한 환수 인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오는 8월 10일부터 2차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남원시>

주관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처 2개소를 사용처로 추가할 예정이며, 남원시에서도 하반기에 예정된 지역 내 각종 기획 공연에서 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재정자립도 9% 미만...채납징수 총력

징수강화·유휴 공유재산매각추진

남원시가 다양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장기적 발전도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9%에 못 미치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9%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5월부터 채납관리단을 운영해 고의 채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를 실시하고, 생계형 채납

자에게는 분납과 복지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화 상담 중심 방식에서 현장 방문 조사로 전환해 금융·동산 압류도 병행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100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전수조사와 부동산 압류(92건), 변호판 영치(134건), 가택수색(6건), 동산압류(37건), 급여압류(57건)를 통해 140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질 채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급여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공매(33건)와 급여압류(75건) 예고안 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5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와 압류를 진행한다.

또한 행정목적의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재산(토지) 682건 중 139건(감정가액 28억)을 선별해 매각 중에 있으며, 유휴 공유재산은 추가 매각하거나 대부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추가 모집

임실군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족 동반 이동 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생산 6~11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차량 구입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량에 대해 추가 대상자 모집 신청서를 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2007년 5월 13일 이후 출생자부터)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신청자와 대상 3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교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올해 안에 구매계약 및 출고, 신규등록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속하여 도내에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매도 및 명의 이전이 제한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남면, 제36회 '계남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양종원 이회림

장수군 계남면은 지난 14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6회 계남면민의 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계남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6회 계남면민의 날'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문화체육장에 양종원 씨, 산업공익장에 이회림 씨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수상자로 선정된 양종원 씨는 전 계남면체육회장으로 활동하며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지역 문화·체육 발전에 힘써왔다.

산업공익장 수상자인 이회림 씨는 계남 여성이용소방대와 생활개선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농촌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왔다. 아울러 토마토 선도 농가로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 힘써왔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산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온가족 명랑운동회 '너랑나랑노랑' 개최

진안군이 내달 6일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잔디광장에서 온가족 명랑운동회 '너랑나랑노랑'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디어 화면 밖으로 나와 몸으로 신나게 노는 오늘 하루"라는 주제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미니 명랑운동회 △아트릭 미술쇼 △비보잉 서커스(브레이크스) △수수께끼 보물찾기 △꿈을 실은 비행기 날리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 도슬라임, 우정 팔찌, 석고 마그넷, 키팅 만들기 및 페이스 페인팅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와글와글 놀이마당(너랑나랑열차), 푸드트럭 등이 마련되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너도나도 노랑'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해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은 옷, 모자, 양말 등 노랑색 아이템을 착용하고 행사장에 방문해 한층 더 밝고 일체감 있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성과 중심 행정체계 강화

민선8기 군정 주요 사업 실행력·행정 효율성 높여

임실군이 민선8기 군정 주요 사업의 실행력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2026년 임실군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성과지표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공직자들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군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부서별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에 대하여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지표별 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최종 성과지표를 확정했다.

군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군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은 물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실시되는 중간평가를 통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과관리는 군정 운영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기부로 즐기는 '산골영화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무주산골영화제 입장권 제공

무주군이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6.4~8)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문화·체험형 답례품으로 '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3만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등나무운동장은 산골영화제 개막식과 야외영화상영, 각종 공연이 개최되는 공간으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선옥 무주군 자치행정과장은 "영화제 기간 등나무운동장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화와 공연 관람과 함께 자연특색이 무주의 감성을 만끽할 기회"라며 "무주에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무주에서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초여름 낭만·휴양 영화제에 즐겨 보시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 13일 전북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전북은행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활동

<사진=무주군>

방법과 혜택, 답례품 등을 안내해 전북은행 임직원 82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김모 씨는 "연말정산 혜택도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매해 지역 상품들을 비교하며 기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무주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이 끌렸다"라며 "작년에는 따로 예약해서 입장했었는데 올해는 뭔가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취약가정 가족외식 지원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대상 '가족외식지원' 프로그램 진행

임실군(심민 군수) 드림스타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6일, 평소 경제·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가족 외식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관내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외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중한 추억

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참여 가족들은 지정된 날짜에 시간 차를 두고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낙인감을 최대한 줄이고 평범하게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해당 가족들에게 기억에 남는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가족 선호도가 높은 외식 업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물을 함께 제공하여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심민 임실군수는 "아이들이 가장 행

복해야 할 가정의 달에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길 바란다"며 "진정한 복지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이번 사업 이후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관내 약국 운영 실태 지도·점검

약사법 준수 여부·관리 상태 점검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 구매·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약국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시 강화와 의약품 안전 판매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군은 보건약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장수군 관내 약국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약사 명찰 패용 여부 △약국 등록증 및 약사 면허증 게시 상태 △의약품 가격표시 적정 여부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상태 △전문 의약품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구분 보관과 잠금장치 관리 여부, 재고 상태, 점검부 작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

인하며 군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도 힘썼다.

노승무 원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단순 단속보다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약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해 약국 운영의 투명성과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행복마차' 본격 운영

냉동탑차 개조 차량 생필품 구매대행안부 확인 등

장수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 전역에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행복마차'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마차'는 냉동탑차를 개조해 운영하는 이동형 복지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대행,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전기시설 수선 등 생활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수군 특화사업이다.

2023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기존 장수읍에만 시행되던 '행복마차' 사업을 지난해부터 7개 읍면 전역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지역 내 34개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행복마차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찾아가는 안부 확인'을 통해 고립가구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불편 정비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미래 농업 밝힌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쾌거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6명,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대상에 5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명에게는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독립 영농 3년 이하)에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지·자금·기술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로 선정된 5명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1.5% 저리 1인당 최대 5억)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모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사업·지원 대상에 6명,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대상에 5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명에게는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독립 영농 3년 이하)에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지·자금·기술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 의지와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 행정 지원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N장미축제에서 달콤·살벌(?) 프로포즈!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임실N장미축제가 장미꽃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달콤·살벌(?)한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군은 임실N장미축제에서 MZ세대와 연인들을 겨냥한 파격적인 커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임실N프로포즈 게임'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 콘셉트를 접목한 이색 서바이벌 이벤트다.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은 사전접수를 통해 분선에 진출할 정예 커플 10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들은 축제 현장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콤·살벌(?)한 프로포즈 이벤트 △임실N치즈피자 빨리 먹기 등 긴장감 넘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축제장 곳곳은 게릴라 형식의 거리공연인 '모즈 스트리트 아트쇼'가 펼쳐져 활기찬 분위기를 더한다. 4일 내 이어지는 이번 아트쇼는 마술, 마임, 발레, 비눗방울, 저글링 서커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실 땀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중·고등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진안군이 지역 간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진안군 진로진학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학생들이 정보 접근성이나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겪는 진학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진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역·특인·재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한다.

학교 방문형 컨설팅은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기반으로 기초자료를 분석한 뒤 계열 및 학과

탐색, 맞춤형 진학 전략 수립, 질의응답 및 피드백, 상담 결과 리포트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교 일정과 별도로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 신청도 운영한다. 개별 신청자의 경우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중앙예류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회당 약 50분 내외로 무료 진행되며 자기주도학습 방법, 수능 대비 학습전략, 희망 대학 및 학과 선택 가이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와 면접 준비 등 입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시, 운수종사자와 함께
화물공영차고지 대청소

남원시가 직영하는 화물공영차고지에서 지난 17일, 화물운수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은 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행사로, 참여자들은 차고지 내에 장기간 방치된 폐타이어, 폐자재 등 대형 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성숙한 차고지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선욱 남원시 교통과장은 "환경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운수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남원시 역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김제 '다늘팜', 지역 사랑 담아
착한가게 가입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다늘팜'이 '착한가게' 정기 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다늘팜은 매월 3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이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 기탁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늘팜은 다육식물 재배와 판매를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 민박 등을 운영하는 복합 농업 체험 공간이다. 특히 김제시 늘봄학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순희 다늘팜 대표는 "농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힘을 보태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행사' 개최

"청춘새로운 출발 응원"

남원시는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향교(전교 김시열)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된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번 전통 성년례에는 남원향교와 유림을 비롯해 성년례를 체험하고자 하는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생

들과 각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학생(관자) 20명, 여학생(계자) 20명의 성년자가 전통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과 비녀를 착용한 채 엄숙히 이루어졌으며, 주요행사로는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등이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오늘의 주인공인 학생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는 18일 남원향교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김제 청하면 복지기동대,
LED 등 교체·지붕 방수 봉사활동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병연)가 18일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LED 등 교체와 지붕 방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두웠던 실내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지붕 누수의 원인인 이음새 부분을 방수작업으로 보수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성남마을 한 어르신은 "형광등 조명이 칩칙해 어둡고 답답했는데, LED 등으로 교체되어 세상이 환해진 느낌에 기쁘고, 비만 내리면 집안으로 물이 떨어져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제 고민이 해결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병연 복지기동대장은 "침체했던 생활공간을 밝게 비추고, 지붕 누수로 인해 양동이를 비워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린 것만으로도 독거 어르신 가정에 따뜻한 위로를 전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신속한 봉사활동을 펼쳐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용진읍, 아이들 입맛 맞춘 외식 지원

'사랑의 중식 지원 사업' 진행

완주군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의 입맛과 취향을 적극 반영한 특별한 외식 지원에 나섰다.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중식당 향뜰찜빵에서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중식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짜장면, 짬뽕, 볶음밥 등 평소 본인이 먹고 싶

었던 메뉴를 직접 선택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미양 용진읍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아이들에게 외식은 단순한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라며 "이번처럼 아이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아이들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익산 당동맹어린이집, 고사리손으로 모은 나눔

익산 어린이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익산시 신동은 18일 '당동맹어린이집(원장 김점순)'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성금 126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9일 원아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아나바다 플라마켓'을 통해 마련됐다. 당동맹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아나바다'의 의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눔의 미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플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2년 동안 매년 바자회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신동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기탁하는 등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점순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보림사, 라면 150상자 기탁

정읍시 보림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15일 지역 주민을 위한 라면 150상자를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덕천면 등 관내 5개소에 설치된 공유냉장고를 통해 배분된다. 종교계의 자발적인 기부가 지역사회의 먹거리 복지망을 든든하게 채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림사 종지 주지 스님은 "석가

탄신일은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신도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교계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계층 이웃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받은 소중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신천지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건지산 일대 환경 정화 활동

전주시 건지산 일대에서 지난 15일 산불 예방 캠페인 및 등산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헌에 나섰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추진한 이번 활동은 매월 시행하는 정기 봉사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 40여 명은 건지산 등산로를 돌며 방치된 생활 쓰레기 약 300리터를 수거하는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산불 예방, 나부터 실천합시다"라는 구호를 통해 일상 속 산림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함께 해요!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천 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남원기록원'

남원다움관-레코드테크-소금창고 연결...新 문화관광 축 구축

<사진=남원시>



남원 레코드테크,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 기억·기록 온전히 보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건립 중인 '남원 레코드테크'를 중심으로 광한루원 서문 일대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신축 중인 레코드테크와 기존 지역기록관 '남원다움관', 로컬브랜딩 사업 선정지인 '소금창고'를 '남원기록원'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연결해, 광한루원에서 남원예촌, 공설시장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문화·관광 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남원다움관'은 그간 1인 체제라는 한계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약 12만 점에 달하는 민간 기록물을 상시 및 기획 수집했으며, 올해 2건을 포함해 국가공모사업에 총 10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금동부터 도통동까지 아우르는 남원기록조사집 9권을 발간하며 지역기록 보존에 앞장서 왔다. 현재는 제10차 사매면 기록화 조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소리 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 콘텐츠 구축, 춘향제 아카이빙 등 핵심 기록 자산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남원 레코드테크'가 완공되면 두 공간의 시너지는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151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26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는 레코드테크는 올 하반기

준공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새롭게 들어서는 레코드테크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기억동'으로, 기존 남원다움관은 수집과 보존 중심의 '기록동'으로 기능을 세분화해 운영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간 확장을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 기록의 산실인 '남원기록원' 설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남원기록원'이 설립되면, 남원의 고유한 역사와 시민의 삶이 담긴 기록을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다채로운 문화 자산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 이야기를 한데 모은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일 것"이라며, "시민들이 먼저 찾는 편안한 사랑방이자, 남원의 기억과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변 관광지와 연계 관람이 용이한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법1길 14)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10:00~18:00)까지 운영 중이며, 남원 레코드테크는 차질 없는 공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